



# “희귀·전문서적 걱정마세요”

## 전세계 8천400개 서점 연결 ... 초판 절판된 책도 '척척'



지난 2월 졸업을 앞둔 대학생 윤군은 자신의 학생증으로 대출된 책을 반납하지 못해 졸업을 못할 지경에 처했다.

그의 이름으로 대출된 책은 국내에선 구하기 힘들고, 외국에서도 이미 절판된 '일러스트레이티드 아키텍처'라는 건

축 디자인 전문잡지. 다행히도 윤군은 어렵사리 책을 구할 수 있었는데, 분실한 학생증 때문에 벌어진 위기를 해결해 준 곳은 온라인 희귀서적 전문서점 '빨간구두(www.redshoes21.com)'였다.

온라인 희귀서적 전문서점 '빨간구두'의 대표 신기섭(49)씨는 이처럼 일반인이 구하기 힘든 고서적과 희귀본을 전 세계 고서점에 수소문해 구해준다. 2001년 6월 설립 이후 펄 벅의 '대지' 1931년도 초판본, 하버드 대학 한국인 교수의 수십년 전 박사논문, 페루 음악서, 이집트 점성술과 중세 세계지도 관련 서적, 사회주의권 서적 등 고객이 원하는 온갖 종류의 서적을 구해주고 있다.

고객의 주문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8,400개에 이르는 거래 서점의 재고목록 2,800여만 권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냈다.

취급하는 도서들이 중고서이니 만큼 고객들을 위해 책의 크기, 상태를 표시해 놓고 있는데 표지에 얼룩이 있다거나, 없는 페이지가 있다는 것까지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해외 배송인 만큼 분실 될 우려에 대비해 각각의 도서마다 보험적용도 해 놓고 있다. 취급되는 도서가 중고 서적이니 만큼 운이 좋은 경우엔 고인이 된 유명작가의 친필사인이 있는 도서를 받을 수도 있다.

희귀서적 전문점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11 테러 사건의 경우 '저강도 분쟁'에 관한 참고 서적, 텔레반, 아프카니스탄에 관한 책들도 집중 소개한 바 있다.

책값은 대부분 1권당 7~8만원 안팎이나,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서도 있다. 직접 주문을 받아 구해준 책 중 최고가는 300만원이다. 회사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신간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준다.

외국계 인쇄 기자재 공급업체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다 본사 발령 시 이같은 사업아이템을 얻은 신씨는 자신의 사업이 단순히 이익 창출만이 아닌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사업 외중에도 아쉬운 것은 회사에 한 달에 100권의 도서 구입 주문이 몰릴 만큼 국내 도서관과 서점들의 도서 구비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신씨는 "외국의 경우 학교나 교수들의 지식수반을 목적으로 하는 서적구입은 시간과 금전을 아끼지 않는다. 학문 발전의 밑바탕이 그만큼 두터워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학교의 재정이 좋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도서구입 비용이다. 학문의 바탕을 그만큼 소홀히 한다는 반증이다."라며 국내 도서구비 실태를 아쉬워했다.

(이용우기자)